www.GungPlant.co.kr
시원하게! 편안하게! 부드럽게! 진료하는
궁플란트치과의원
TEL. 02-722-2870 조계사 앞 사거리, 1호선 종각역 2번 출구 앞

佛教新聞

전통 한방향의 본가
취운향당 www.cwh.co.kr 취운향당
☎ 054) 933-6371~2

1960년 1월 1일 창간 주2회 발행
불기 2556년 12월 22일 (2012년 / 단기 4345년 음력 11월10일) bulgyo.com 대표전화 (02)730-4488 제2875호 토

예수님 탄생 '축하합니다'

지난 17일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이 땅에 사랑과 자비의 빛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이 열렸다. 이날 점등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등과 조계사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 크리스마스 캐롤을 합창했다. ▶관련기사 2면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종단쇄신 '박차', 집행부 인사 단행

기획-주경, 재무-원범
박물관장-원학스님 등
부·국장급 10명

불학연구소장도 인사

주경스님 기획실장

원범스님 재무부장

원학스님 불교중앙박물관장

원경스님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각림스님 문화재연구소 상임이사

혜명스님 불학연구소장

종호스님 교육위원장

종단 쇄신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33대 조계종 집행부의 과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새 집행부 인사가 단행됐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8일 신임 총무원 기획실장에 주경스님(서산 부석사 주지), 재무부장에 원범스님(부산 선암사 주지), 불교중앙박물관장에 원학스님(중앙종회의원),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에 원경스님(중앙종회의원), 불교문화재연구소 상임이사에 각림스님(중앙종회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국장급의 경우 총무원 사서국장에 현담스님이 새로 임명됐다.

이번 인사는 강력한 쇄신입법 이후 종단이 차츰 안정되면서 종무행정 및 입법 경험이 많은 스님들을 대거 중용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쇄신불사 핵심업무를 책임지는 총무부장은 유임시켜 종단 안정과 지속성을 꾀했다. 특히 종단의 쇄신책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를 위해 새로 설치된 중앙인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도덕성과 전문성도 검증됐다는 평가다. 총무원장 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임명장을 수여하며 책임감과 성실성을 당부했다. "각자 소임엔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마련"이라며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상근직임을 인식하고 직원들과 같이 호흡하며 성실하게 소임에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자리에 배석한 총무부장 지현스님 역시 "33대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부서 간의 원활한 협력으로 주요과제를 원만하게 마무리하자"고 격려했다.

한편 교육원장 현응스님은 지난 17일 신임 교육원 불학연구소장에 혜명스님을 임명했다. 혜명스님은 올해 초 선불교 분야 종단 교수아사리로 위촉돼 선불교와 대승불교 교육 및 연구를 진행해 왔다. 동국대 선학과 교수 종호스님은 17일 27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새 교육위원장에 위촉됐다. 선학과 교수와 함께 동국대 종학연구소장을 맡아 조계종의 역사와 사상을 학문적으로 재정립하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행이력 2면

장영섭 어현경 기자

불교신문 사장 성직스님

주간 일감스님 임명

성직스님

일감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새 집행부 인사와 함께 지난 18일 불교신문 사장에 성직스님(중앙종회의원)을, 주간에 일감스님(총무원 재무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신임 불교신문 사장 성직스님은 1973년 용주사에서 전강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6년 법주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용주사 중앙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했으며 만의사 주지, 제13, 14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현 염불사 주지, 제15대 중앙종회의원이다.

신임 주간 일감스님은 1990년 해인사에서 법전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4년 범어사에서 일타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했으며 봉암사 태고선원, 해인총림 선원, 고불총림 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했다. 보리사 주지, 자성과 쇄신 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총무원 재무부장을 역임했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국가권력 불법행위 책임 끝까지 물어야"

'10·27법난 재조명 세미나'서 공감대 확산

10·27법난의 역사적 의미와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근현대 초유의 불교탄압사건인 10·27법난이 불법적인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만큼,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이날 세미나의 결론이었다.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국제회의장에서 '10·27법난의 재조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회, 불교신문사가 공동 주관한 세미나는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초유의 불교탄압사건인 10·27법난의 참상을 되돌아보고, 합리적인 보상방안 도출을 위해 마련됐다.

기조발제에 나선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장 대오스님은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활동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가해주체가 축소되고 구체적인 보상내용이 빠진 현행법의 즉각 개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조직쇄신을 역설했다. 대오스님은 "10·27법난은 한국불교 전체를 상대로 저지른 잘못된 국가권력의 폭거"라며 "그러나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온전한 명예회복은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를 국가로 명시하고 법 효력시한을 폐지해 안정적인 진상규명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며 "종단 집행부가 철저한 문제의식을 갖고 치밀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과거청산의 맥락에서 본 10·27법난'을, 이재승 건국대 교수가 '10·27법난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가 '10·27법난의 피해와 피해자(단체)의 명예회복 방안'을 각각 발제하며 진실과 화해를 위한 후속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종단은 세미나와 함께 14일 대구 인터불고호텔과 16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기념법회를 연이어 열고, 참다운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을 발원했다. ▶관련기사 5면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제1회 불교음악상 대상 이찬우씨

공로상-박상진 정부기
원력상-강형진 이달철
18일 시상 · 축하공연

종단 차원에서 최초로 제정된 불교음악상의 최고상은 부산 안국선원 지휘자로 '청법가'를 작곡한 이찬우씨〈사진〉에게 돌아갔다.

조계종 총무원은 불교음악을 통해 불법홍포와 불교문화 발전을 위해 공헌한 불교음악인을 격려하고 사기를 고취시키기 위해 제1회 불교음악상 수상자를 선정, 지난 12일 공식 발표했다. 대상 수상자는 이찬우씨, 공로상에는 박상진 동국대 한국음악과 교수와 정부기 중앙대 음악대 교수로 선정됐다. 또 원력상은 강형진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장과 이달철 한국불교음악인협회장이 차지했다.

수상자 전원에겐 총무원장 상장과 트로피 및 상금이 수여된다. 대상은 500만원, 공로상은 300만원, 원력상은 100만원을 수여한다.

이번 불교음악상 후보 선정 방식은 공모를 통해 17명의 후보가 접수됐다. 심사위원은 총무원 문화부장 진명스님을 비롯, 총무부장 지현스님, 포교부장 송묵스님, 반영규씨와 박범훈씨가 각각 회의를 거쳐 5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지난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불교음악인들의 축하공연과 함께 개최됐다.

하정은 기자 tomato77@ibulgyo.com

지면안내

사미(니) 중앙승가대 학비 '면제' 2면
"불교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중앙신도회 신도단체 연수 '현장' 6면

세계적 명상스승 아잔 브람 스님 초청

세계명상힐링캠프
- 아잔브람의 선정체험과 깨침을 중심으로 -

일시 2557(2013)년 1월 10일~1월 16일
장소 동국대 국제선센터(250명, 선착순 입금 마감)
접수 아잔브람 한국명상센터 Daum ☎ 1544-7609, 010-3149-7111

주최_ 참불선원 아잔브람 한국명상센터
후원_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동국대 국제선센터, 불교TV, 불교신문, 해인사승가대학, 대한불교진흥원, 한국경제인불자연합회, ㈜넥슨코리아
협찬_ 안국선원, 불광사, 봉은사, 구룡사, 조계사, 해인사, 수덕사,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부산시지부, 공감의 기쁨

준비위원_ 원담 스님(선원수좌), 효암 스님(선원수좌), 정명 스님(선원수좌), 제정 스님(종회의원), 정오 스님(해인사), 일명 스님(선원 수좌), 자응 스님(동화사승가대 교수), 맥산 스님(선재선원장), 광명 스님(비로선원장), 대위 스님(해인사), 각산 스님(참불선원장), 김태호(국회의원), 하오명(한국다학원장), 김권수(휴먼경영심리연구소 대표교수), 최동호(환경부 서기관), 최성길(경상대 교수), 주효근(대구전통문화협회장) *무순